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발행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발행일 2016년 6월 15일 | 총권 39호 | 주소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강하2로 267 | 전화 02-720-7259 팩스 02-720-7259 | 이메일 hakdonet@hanmail.net | 편집 학도넷사무처 | 디자인 인디자인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성인독서진흥에 주력하는 이웃나라 대만, 도서관·서점 방문기

‘어른이 독서하지 않는 사회에서 어린이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어렵다’

대만인은 전반적으로 인문교양 수준이 높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하듯 책을 많이 읽는다. 지난 3월 대만 도서관과 서점방문 여행은 이를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 대만 도서관은 이용자들로 분주하고, 서점은 책을 사려는 사람들로 붐빈다.

대만국가도서관은 우리나라의 국립중앙도서관과 같은 역할을 하는 도서관으로 타이베이 중심가에 있는 중정기념당 앞에 있다. 접근성이 최고다. 문을 열고 들어가 몇 개의 계단을 오르면 중앙에 있는 안내 데스크를 중심으로 좌우로 열람실이 이어져 있다. 우리 국립중앙도서관의 넓은 로비가 늘 아깝다고 생각해서인지 로비크기를 가늠해본다.

국가도서관에는 특이한 곳이 있다. 66개의 研究小間인데 1평정도의 작은 공간으로 책상과 데스크 램프만 있다. 이 공간은 개인에게 최대 두 달간 대여해주는데 논문 쓰거나 글을 쓸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공간은 국립대만도서관에도 있다.

국립대만도서관은 대만총독부도서관을 모태로 1913년 개관한 도서관으로 년 이용자가 3백만명에 달하며 대만에서 가장 큰 도서관이다. 국립대만도서관도 공원과 도심에 끼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특이한 점은 2층에 마련된 악령자원구(樂齡資源區)와 3층의 청소년열람구역이다. 악령자원구는 55세 이상의 어른들만 이용할 수 있다. 55세로 정한 것은 퇴직 10여년 전부터 독서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라고 한다. 청소년열람구역에는 청소년만 출입할 수 있다. 악령자원구나 청소년열람구역의 규모는 한 개의 방이 아니라 한 층을 거의 다 차지할 만큼 크다. 대만도서관 운동은 정부주도로 이뤄지며, 특징으로 도서관간 상호협력, 전문직(문헌정보학 전공자) 관장 보임의 전통, 성인독서진흥활동,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선도적 위상을 들고 있다. 특히 성인독서진흥 활동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데 ‘어른이 독서하지 않는 사회에서 어린이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어렵기 때문이고, 또 성인 독서가 되지 않으면 사회전반의 독서문화 진흥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베이타우도서관은 2006년에 개관한 친환경도서관으로 세계 아름다운 도서관 25곳으로 선정된 곳이다. 생태환경공원에 위치하여 울창한 숲과 바로 옆에 온천을 두고 있다. 대학생들이 도서관을 배경으로 졸업사진을 찍을

만큼 경관이 아름답다. 경사진 지붕위에 한쪽은 잔디를 심고, 한쪽은 태양열판을 두었다.

도서관 이용자보다 관람객이 더 많은 베이타우도서관은 1일 1천7백여명, 방학 중에는 2, 3천명이 찾는다고 한다. 밖의 경관을 잘 보기위해 3단의 낮은 서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늘어나는 책을 감당 못해 이미 서가 위에 책이 올라가 있다. 아름답기는 하지만 많은 관람객으로 도서관으로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 보인다.

대만의 서점은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이 아닌 대만 문화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04년 타임지 선정 아시아 최고서점에 선정된 청평서점은 ‘인문, 예술, 창’을 모토로 운영하는데, 돈화남점은 24시간 영업을 한다. 늦은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이 책에 빠져있다. 책을 고르는 사람, 한 쪽 귀퉁이에 앉아서 읽는 사람, 책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린이코너에는 9시가 다 된 시간에도 직원이 책을 읽어주고, 20여명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듣고 있다. 고급스런 인테리어도 오래 머물고 싶게 만드는데 한몫을 한다. 분야별로 칸이 구분되어 있어 책을 쉽게 찾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번잡해 보이지 않는다.

국립대만대학과 국립대만사범대학이 자리한 공관(公館) 지역에는 청평서점을 비롯 골목골목에 헌 책방, 새 책방이 들어서 있다. 오랜 세월을 증명하듯 간판은 부서졌지만 들어가면 주제별로 잘 정리되어있다. 헌 책방이라고 해서 책을 그냥 쌓아 놓은 것이 아니라 서가에 주제를 붙여 찾기 쉽도록 했다. 이들이 책을 얼마나 깎듯하게 대하는 지 알 수 있다. 패션과 식당으로 젊은이들이 붐비는 곳에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서점 10’에 선정된 VVG Soming 서점(예술서적, 화보집, 빈티지 소품을 파는 조그만 서점)과 그림책만 파는 그림책방이 있다. 땅값이 비싼 곳일 텐데, 대만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말이 증명된 셈이다.

대만의 도서관에서, 서점에서 그들의 목적함과 지식에 대한 소리 없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대만은 겉에서 보기엔 깔끔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다. 하지만 겉보다 탄탄한 내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에게서 작지만 강한 나라의 저력을 엿볼 수 있었다.

박영옥 | 학도넷 운영진

차례

01_ 학교 도서관을 여는 글

02_ 학교 도서관 탐방

03_ 이런 수업 어때요

04_ 추천도서

서울초등사서교사 연구 모임
“북토크 톡”에서 추천하는 그림책

06_ 학교 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박찬교 / 이준 / 안태련 / 한명숙

08_ 학도넷 소식

학도넷은 학교도서관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또는 사서교사, 학부모, 학생, 문헌정보학 교수, 출판인 등 도서관과 독서교육에 관심있는 모든 분들이 함께 하는 연대모임입니다. 학도넷 운동은 평등교육과 문화운동의 시작입니다.

학도넷소식지는 학도넷 운동의 일환으로 도서관과 독서운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학도넷 회원(준회원 이상)님들께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회원으로 등록하실 분은 학도넷 홈페이지를 이용해주시요. www.hakdo.net

학교 도서관을 풍성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보낼 곳 : hakdonet@hanmail.net

책과 함께 신나게 놀고, 먹고, 떠드는 도서관

- 이인문(서울관광고 사서교사)



우리 학교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과 다른 점이 있다면 그건 '아주 시끄러운' 도서관이라는 점입니다. 공공도서관에서라면 다른 사람의 독서를 방해하는 소음을 내는 일은 실례일 테지만, 서울관광고 도서관에서는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은 즐거운 곳이어야 하고, 오고 싶은 곳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도서관이 식당 옆에 있는 실습동에 있어, 학생들 교실과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일부러 마음먹고 찾아오지 않는 이상 쉬는 시간에 오기에는 조금 힘이 듭니다. 하지만 매일 한 번 있는 가장 행복한 시간(누군가는 학교에 오는 이유라고 하네요 ^^;)인 점심 시간에는 식당 옆에 있는 도서관을 지나치게 되어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학년별 식사순서를 기다리며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 하는 곳이 우리 학교도서관입니다. 또, 점심을 먹고 내려오면서 도서관에 와서 친구들과 못 다 나눈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도서관에 편하게 오가며 책과 잡지를 보게 되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자연스럽게 책과 함께 교실로 향합니다. 매일 한 번은 도서관을 지나가게 되면 책을 읽고 싶은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도서관에서는 당연히 '정숙'해야 한다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정도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학교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조용히 책을 읽을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쉬는 시간 10분, 점심시간 60분, 방과 후의 자투리 시간이 전부지요. 점심 먹고 이용하려면 길어야 30분이 채 안 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서는 웃고, 즐기고, 마음대로 수다 떠는 공간이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늘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클래식은 아이들에게 조금 지루할 수 있으니 카페처럼 재즈나 오페라 음악을 주로 틀어놓아 수다 떨기

좋은 여건을 만들어줍니다.

우리 도서관은 매년 1박 2일로 캠핑을 떠납니다. 부임 첫 해에 도서부와 학교에서 고기파티를 하고 나서 이야기꽃이 피어 헤어지기 싫어하던 학생들을 보며 '함께 밤을 보내면 더 큰 추억이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장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동료 선생님 몇 분의 협조를 받아 1박 2일로 캠핑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 쓸 일도 많아 힘이 들지만 학생들이 너무 좋아해서 계속하다보니 이제는 전통처럼 굳어졌습니다. 매년 신입부원을 받으면 첫 중간고사가 끝난 주 금요일에 방과 후에 함께 떠납니다. 교통편 때문에 멀리가지는 못하고 버스를 타고 한강 난지캠핑장에 가서 대여텐트를 빌려 함께 밤을 보냅니다. 저녁을 배불리 먹고 나면 기분이 좋아서인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리도 알아서 척척, 선생님 말도 아주 잘 듣습니다. 뭔가 더욱 친밀해진 기분이고,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교감선생님이나 캠핑장 근처에 사는 선생님이 깜짝 방문하시면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학교에선 조금 어려운 교감선생님과도 친근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기도 합니다.



"도서부 동아리가 되기 전에는 서로 관심도 없던 타인이었지만 이제는 가족만큼이나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캠핑을 하고 나서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서로에게 느껴지는 거리감이 아주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막 같은 게 도서부끼리는 없어졌어요. 아마도 함께 고기를 구워먹고 상추쌈에 매운 마늘을 몰래 넣어 먹여주고 하면서 식구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또 별빛을 가로등 삼아 한밤의 한강을 함께 걸으며 나누던 데이트도 크게 한 몫 거들었다고 생각해요.

"나중에 졸업하고서도 매년 다 같이 오고 싶어요." 캠핑을 마치고 롤링페이퍼를 돌리며 서로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적는데, 제게 한 학생이 이렇게 적어주었습니다. 좁은 텐트에 함께 모여 잠도 안자고 새벽까지 수다 떨며 서로를 알아가고,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며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속에서 생각을 키워가고 공감하는 법을 알아가며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며 내가 교사가 되길 참 잘했다는 행복감이 듭니다. 4월이라 아직 냉기가 도는 텐트에서 일어나서 커피를 끓여 마시면 온 몸이 녹는 기분이 들고, 아침 햇볕을 쬐면 금세 따뜻해집니다. 얼었던 몸이 녹고 다시 노곤해져 잠이 오는 캠핑장에서의 아침은 정말 좋습니다. 하나 둘씩 준비들이 일어나면 물을 끓여 컵라면을 먹입니다. 저녁은 거하게 먹었지만, 아침에는 여력이 없습니다. 컵라면에 어제 남은 찬밥을 말아먹는 아이들은 어제 캠핑장에 오기 전의 아이들이 아닙니다. 서로를 보는 눈빛이 달라져 있습니다. 서로를 더욱 편안하게, 더욱 친근하게 바라보는 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밥을 다 먹고 주변 정리를 하고, 버스에 태워 보내고 나면 집에 가서 바로 잠이 듭니다. 몸은 무척 고단하지만 아이들이 집에 도착했다고 보낸 행복 가득한 문자에 보람을 느낍니다. 새로운 경험을 통해 배우고, 타인에게서 자극을 얻고, 여행이 아닌 일상에서도 잘 배울 수 있는 학생으로 성장하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집니다. 그 손에 책이 쥐어져 있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요.



가성비 좋은 학교도서관 프로그램 일심동책(一心同册)

- 정수현(미래산업과학고등학교 사서교사)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했다. 품을 덜 들이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더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나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한 기사가 있었으니 “언제든 방문해도 참여할 수 있는 패시브 프로그램(passive program)”이라는 김은하 선생님의 글이었다.(학교도서관저널 2015년 9월호)

여기에 소개된 여러 가지 사례 중 첫 번째로 나온 것이 책 얼굴 사진 찍기이다. 우리 학교의 일심동책(一心同册)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계기이다. 일심동책은 누구나 예상하듯이 일심동체(一心同體)를 바꾸어 지은 제목이다. 책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다.

도서관 게시판에 안내문을 내걸었다. “일심동책(一心同册) 책과 하나가 된 내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서 메일로 보내주세요.”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도서부의 지원이 필요했다. 행사 기간 동안 도서부 학생들은 바코드리더기 대신 휴대폰 카메라를 들었다. “뭐하는 거야?” “사진 찍어서 응모하면 상품 준대” “진짜?”

점심시간 도서관에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점심시간 도서관 봉사하는 도서부를 기다리던 친구들이, 다음에는 대출 반납하러 도서관에 왔던 학생들이, 나중에는 시끄러운 교실을 피해 공부하러 왔던 학생들 까지도 도서관에서 사진 찍기 놀이에 빠져 들었다.

틈틈이 도서관에 와서 사람 얼굴이 들어간 책을 찾고, 친구들을 동원해서 책과 몸을 맞추어 사진을 찍었다. 적당한 책을 찾으면 다른 친구들이 보기 전에 대출로 선점하는 것은 기본이고 학생증이 없어서 서가 사이에 몰래 숨기는 것은 애교다. 서가 사이 으스스한 곳에서 대출을 봉사하는 성인용(?) 사진까지 등장했다. 덕분에 도서관은 학생들의 사진 찍기 놀이로 북적북적한 공간



이 되었고, 재미있는 사진들과 함께한 친구들 사이의 돈독한 우정은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얼굴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준비는 안내문 하나와 상품, 그리고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전부이다. 소박한 준비에 비해 재미있는 과정과

뿌듯한 결과물이 나오는, 요즘말로 가성비 좋은 프로그램이다. 매년 반복되는 비슷비슷한 도서관 행사에 염증을 느끼고 있다면 “쉽게 시작하고,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패시브 프로그램을 권하고 싶다.

경기도 파주시 회동길 329(서패동) 2층
전화 031-955-9680 팩스 031-955-9682 이메일 goraebook@naver.com



코스모스 스쿨

1. 해즈의 요술 안경
2. 해즈 탐사대

안재희 글/박바퀴 그림/152x225mm/164쪽
180쪽/각 권 11,000원/초등학교 중학년 이상

지구에서 코모성까지! 맑음성, 소리성, 그림성, 마왕성을 지나 코모성에 있는 코스모스 스쿨을 만나 보세요!



할아버지가 남기고 간 우주의 비밀 지도와 일곱 권의 책의 책을 가지고 해즈와 친구들은 해즈 탐사대를 결성하고 우주로 여행을 떠납니다!

맑음성의 기운을 온몸에 간직한 채 나타난 우주 아이 해즈는 은둔 과학자 망토 할아버지의 손에서 자란다. 해즈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할아버지의 유품 속에서 우주의 비밀 지도와 일곱 권의 책을 발견하게 된다. 해즈는 애니, 주니, 피터, 쟁구와 함께 해즈 탐사대를 결성하고 우주여행을 꿈꾸게 된다.

코스모스 스쿨 시리즈

1. 해즈의 요술 안경 / 2. 해즈 탐사대 / 3. 지혜의 별 코모성 / 4. 붉은 구름 때 / 5. 시간의 소용돌이
6. 별들의 무덤 / 7. 반야선의 비밀 / 8. 창조의 놀이터

서울초등사서교사 연구 모임 “북토크 톡”에서 추천하는 그림책

“북토크 톡” 모임은 서울초등사서교사 8명(서울사대부초 박은하, 송파초 김혜영, 청계초 박영혜, 영훈초 이순주, 신림초 민기연, 종암초 김유진, 신현초 백지혜, 송곡초 유승희)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2010년 여름 어린이책을 읽고 이야기도 나누고 서평도 함께 써보며 공부하고자 시작되어 2016년 6월 현재 135회의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함께 공부한 내용들을 여러 선생님들과 공유하고 싶어 2012년 3월부터는 “북토크 톡”이라는 온라인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16호까지 발행) 우리 모임은 퇴근시간 이후 월 2~3회 이상의 꾸준한 만남을 가지며 책이야기도 나누고 방학 때는 도서관 등을 견학하며 학교도서관이 제대로 운영되고 학교도서관을 통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즐겁게 책을 읽을 수 있게 하기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사서교사들의 모임입니다.



도서관에서 만나요

가제키 가즈히토 글 / 오카다 치아키 그림 / 김소연 옮김 / 천개의 바람 / 2015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그림과 내 주변 어딘가에서 “선생님~” 하고 튀어나올 것만 같은 볼이 빼알간 귀여운 아이들 모습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도서관에서 만나요>. 일본도서관의 인기 있는 행사 -내가 좋아하는 인형과 함께 도서관에 와서 그림책도 읽고, 이야기도 듣다가 데리고 온 인형들을 도서관에서 하룻밤 재우는-에서 이 책의 모티브를 얻었다고 한다. 그저 이 책을 읽기만 해도 상냥한 사서선생님들과 재미있는 책이 가득한 도서관으로 지금 당장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든다. 인형을 도서관에 두고 온 아이들은 그날 밤 어떤 꿈을 꿀까?



이상한 엄마

백희나 글·그림 / 책읽는 꿈 / 2016

워킹맘들의 마음을 이보다 더 잘 표현한 그림책이 있을까? 우렁각시가 ‘짠’ 하고 나타나 저녁상을 차려주었으면 하는 마음, 아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발을 동동거리는 모습,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장수탕 선녀님>의 동생쯤 되는 미지의 선녀님은 전화가 혼선되는 바람에 호호 엄마의 전화를 받게 된다. 아픈 아이를 잠깐만 보살펴 달라는 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선녀님은 호호가 나올 수 있도록 잘 보살펴준다. 시계, 달력, 문제집, 호호의 백일 사진 등등 집안의 작은 소품까지도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어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길 때마다 찾아보는 쫄쫄한 재미가 있다.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 선녀님의 실체에 폭소를 터트리게 되는 <이상한 엄마>. 일하는 엄마와 아이가 함께 보면 좋은 책.



엄마에게

서진선 글·그림 / 보림 / 2014

장기려 의사선생님의 이야기를 둘째 아들의 시선으로 들려주는 책이다. 아이는 6·25 전쟁을 피해 가족과 함께 피난길에 오른다. 의사인

아빠를 따라 환자들과 버스로 먼저 평양에서 부산으로 내려왔지만 엄마와 동생은 내려오지 못하고 휴전이 되었다. 아이는 이제 엄마를 만날 수 없다. 이산가족의 이야기를 한 가정의 이야기로, 엄마를 그리워하는 이들의 이야기로 들으니 더 슬프고 아련하게 느껴진다.



7년 동안의 잠

박완서 글 / 김세현 그림 / 어린이작가정신 2015

‘박완서’라는 거장의 작품을 성인용 소설이나 두꺼운 동화책이 아닌 그림책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크나큰 기쁨이지만, 앞뒤 면지의 멋스러운 캘리그라피와 <만년샤스>, <부숭이는 힘이 세다>, <준치가사>, <엄마 까투리> 등의 작품을 그려온 김세현 작가의 동양화풍의 그림도 눈길을 사로잡는다. 흥년으로 새로운 마을을 찾아 떠나야만 하는 개미들은 어느 날, 마을 광이란 광은 모두 채울 만큼 거대한 먹이를 발견한다. 하지만 지혜로운 늙은 개미는 그 먹잇감이 7년 동안 땅 속에서 인내하던 매미라는 것을 알리고, 개미들은 회의를 통해 매미가 푸르른 하늘로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관점에 따라 <일은 하지 않고 노래만 부르는 매미>, 혹은 <노래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매미> 이 두 가지로 매미를 바라볼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귀중한 생명이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준 개미들의 행동이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그림책이다.



밀리의 판타스틱 모자

기타무라 사토시 지음 / 배주영 옮김 / 불광출판사 / 2016

일본인이지만 유럽에서 활동하는 작가의 특이한 이력 때문인지 동서양이 묘하게 혼합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밀리의 판타스틱 모자>는 작가의 전작, <머리가 요랬다 조랬다!>와 비슷한 ‘상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다. 예쁜 모자를 사고 싶지만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밀리에게 모자가게 아저씨는 -아이를 매정하게 돌려보내지 않고-, ‘상상’이라는 모자를 건네준다. 밀리의 머리 속에 떠오르는, 감히 어른들은 상상 할 수도 없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모자. 밀리를 엉뚱하다 타박하지 않고, 끝까지 아이의 상상력을 지켜주는 부모님의 모습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앉아 있는 아이에게 숙제하라고, 책 읽으라고 잔소리하는 내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오늘은 잔소리 대신 아이와 마주보고 앉아, 나는 어떤 모자를 쓰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은 어떨까?



딸꾹질

김고은 글·그림 / 이지북스(고래벙속) / 2010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은 자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다. 말도 되지 않는 어린 자녀의 말을 들어주기에 부모는 너무 바쁘다.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의 부모도 그렇다. 바쁜 부모에게 말을 하려다 여러 번 거절당한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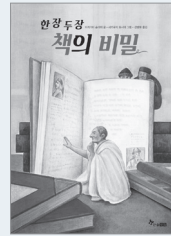
이는 급기야 딸꾹질을 시작하여 멈추지 않는다. 병원에서 받은 처방대로 아이의 말을 지칠 때까지 들어 주고 난 후 아이는 딸꾹질을 멈추게 된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좋은 교육환경이나 비싼 장난감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것임을 알려 주고 있다.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구스노키 시게노리 글 / 이시이 기요타카 그림 / 베틀북 / 2013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늘 혼나기만 하는 초등학교 1학년 남자아이의 이야기이다. 변명이라도 아니 상황설명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입을 꼭 다물고 고개를 돌린 채 혼나기만 하는 아이의 모습에 마음이 아프다. 어떻게 하면 칭찬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혼나지 않을까? 하는 아이의 마음을 칠월 칠석 날 소원쫓기에 담았다. “혼나지 않게 해주세요” 맞춤법도 틀리고 뽀뽀뽀뽀 글씨 속에 아이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진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선생님들이 읽으면 뜨끔해 지는 이야기, 어른들이 반성하게 되는 책이다.



한 장 두 장 책의 비밀

이케가미 이치 글 / 세키구치 요시미 그림 / 강병화 옮김 / 한솔수북 / 2016

책의 역사를 알려주는 그림책이다. 기존의 책의 역사에 대해 알려주는 많은 책들이 딱딱한 형식을 취하고 있었다면 이 책은 다르다. 책 속에서 카이시르, 구텐베르크, 알두스 아저씨들이 나와 지호에게 책의 역사를 이야기한다. 도서관에 온 지호에게 갑자기 로마의 위대한 장군 카이사르 아저씨가 나와 지금의 책 모양이 있게 한 장본인이 자기라고 이야기하며 어떻게 이런 책의 모양이 만들어졌는지 이야기한다. 잠시 후 구텐베르크와 알두스 아저씨도 책 속에서 나와 종이와 인쇄술의 발명에 대해 이야기한다. 책 속에서 나온 작은 아저씨들의 티격태격하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저절로 책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재미 있는 책이다.



바보와 머저리

박현정 글 / 한병호 그림 / 파란자전거 / 2014

제목부터 조금은 충격적인 책이다. 아이들 책에 ‘바보’라는 말은 많이 봤어도 ‘머저리’라니…… 노란색으로 칠해진 바탕에 강아지와 고양이 그림이 참 인상적이다. 사과나무를 지키는 바보강아지와 그 옆 시소를 지키는 머저리 고양이가 있다.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둘은 서로를 알지 못한다. 그저 외로움에 누군가 자기 곁에 와 주기를 바라고만 있을 뿐... 고개만 살짝 돌려도 볼 수 있는데 바보와 머저리는 서로를 보지 못한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같은 공간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바보가 먼저 머저리에게 손을 내밀게 된다. 친구간의 우정이든 사람사이의 사랑이든 기다림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따뜻한 그림책이다.

내가 권하는 책



걸리버를 따라서, 스위프트를 찾아서

박흥규 지음/들녘/348쪽/2015년

걸리버 여행기-이 책을 어렸을 때 직접 읽었는지 아니면 어느 날 만화영화에서 봤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몇몇 장면들이 있을 뿐이다. 걸리버가 소인국에 당도했을 때 소인들에게 잡혀 해변가에 누워있는 장면이나 손가락으로 바닷물을 출렁여 적들을 물리치는 장면 같은 것들 말이다. 지금도 이런 장면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니 어린 마음에도 이 신기한 이야기의 상상력에 매료되었던 듯하다. 그런데 '걸리버 여행기'가 아이들을 위한 명작 동화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고전'의 반열에 올라있는 책이라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이 책 '걸리버를 따라서, 스위프트를 찾아서'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걸리버 여행기'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걸리버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어른이 되어 만나는 '걸리버 여행기'에 대한 이야기라고나 할까? 우리는 이 책을 통해 18세기 영국과 아일랜드의 정치, 종교, 사회, 문화를 신랄하게 비웃고 조롱하는 풍자문학으로서 '걸리버 여행기'를 새롭게 발견하게 된다.

1부 <스위프트를 찾아서>에서는 스위프트의 생애와 아일랜드와 영국에 대한 이야기, 당시의 시대 상황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면서 스위프트가 왜 풍자라는 기법을 써야했는지,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2부 <걸리버 여행기>에서는 걸리버를 따라 소인국, 대인국 - 보통 동화는 여기까지만 소개하고 있다. - 공중국, 마인국 편에 얽힌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스위프트가 당시의 세태와 인간성 자체를 어떻게 풍자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 <더 읽어보기>에서는 더 다양한 이야기로 스위프트 이후의 아일랜드의 상황과 우리나라와 아일랜드를 비교하고, 걸리버 여행기가 영향을 받았다는 '로빈슨 크루소'와는 어떻게 다른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1921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까지 7백 년 동안이나 영국의 식민지였던 작은 섬나라 아일랜드.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나고 자랐으나 영국인이며, 죽기 전까지 31년을 아일랜드에서 살면서 성공회 교회의 수석 사제였던 스위프트. 영국의 침략에 항의하여 조국에서는 '배신자'로 불리웠으나 아일랜드에서는 진정한 '애국자'로 불린 스위프트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걸리버 여행기'가 다시 보이는 듯하다. 그런데 걸리버가 만난 그 나라들과 사람들은 이야기 속에만 존재하는 것일까?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묘하게 겹친다. 이러한 동화의 기억으로 걸리버 여행기를 기억하는 분

들과 걸리버 여행기에 향수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걸리버 이야기를 아직 읽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먼저 읽기를 권하고 싶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아는 것이니...

이명애(새숲도서관 관장)



아름다운 아이

R.J 팔라시오 지음/천미나 역
책과콩나무/480쪽/2012년

이 책은 선천적 두개안면기형으로 태어난 아이 '어거스트(August)'가 살아가면서 겪는 문제를 다양한 입장과 관점에서 현실감 있게 풀어냈다.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후속 '줄리안 이야기'도 함께 읽으면 더욱 많은 감동을 선사해 줄 것이다.

이 책의 중심인물인 오기(Auggie는 August의 애칭)는 10살이 될 때까지 뼈 이식 수술을 비롯해 27번의 수술을 받아왔지만 광대뼈가 없다. 축 쳐진 두 눈, 거북이처럼 툭 튀어나온 조그만 입. 오기를 처음 보는 사람들은 헉! 하고 놀란다. 끼약! 하고 놀라서 우는 아이들도 있다. 여러 차례의 수술을 해오느라 또래에 비해 체격이 조금 작고 얼굴만 이상할 뿐, 다른 곳은 모두 정상이다.

그동안 홈스쿨링을 해왔지만 엄마가 해 줄 수 있는 한계점과 앞으로 오기가 마주할 세상을 생각하며 중학교에 진학하기로 한다. 교장 선생님의 배려로 앞으로 다닐 학교를 미리 방문하던 날, 환영친구로 책, 샬롯, 줄리안 세 아이들을 만났다. 아이들은 교실, 급식실과 여러 시설을 안내해주고 학교생활도 알려주었다.

얼마 뒤 첫 등교 날이 왔다. 태어나서 처음 가는 학교, 두근거리고 긴장한 것만큼 엄청난 하루가 열린다. 오기를 바라보는 아이들의 뜨거운 시선, 곳곳에서의 축덕거림, 오기 옆에 앉게 된 아이는 얼굴이 보이지 않게 가방을 담처럼 세워놓는다. 선생님의 인사와 자기소개 시간. 우물거리는 입으로 겨우 소개를 마치자 질문이 들어왔다.

줄리안이다. 오기는 뒤로 묶어 땀은 머리를 하고 있었는데, 스타워즈에 나오는 체다이 수련생의 머리모양 같은 거냐고 묻기에 그렇다고 했다. 오기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워즈에 대해 물어왔다. 좋아하는 캐릭터는 누구냐고 물어서 장고 펫. 이라고 대답을 해주자, 다스 시디어스는 어때?라고 말한 뒤, 오기를 뻔히 바라봤다. 다스는 번개를 맞아 화상을 입고 완전히 망가져서 살갓이 죄다 오그라들어서 얼굴이 통째로 녹아버리다시피 한 인물이다.

이 시간 이후로 오기를 향한 줄리안의 따돌림은 전염

병 놀이로 이어지고 점점 많은 아이들이 합세하며 집단 따돌림이 시작된다. 악화되는 줄리안의 행동을 더 이상 봐 줄 수 없던 책은 줄리안과 맞서게 되고 아이들은 줄리안 편과 책 편, 그리고 중립을 지키는 세 편으로 나뉘게 된다. 배신감, 오해를 푸는 과정, 서로의 진심과 매력을 발견하고 깊은 우정을 쌓아가는 아이들.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고 변화와 화합의 장을 이뤄가는 아이들 뒤에 있는 학부모들의 모습들이 사실적이고 현실감 있게 그려졌다. 진정한 교육이 무엇이고 삶에서 꼭 배워야 할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교육현장에서 잘 녹여 낸 이 작품 속에는 너무 못된 아이도 없고, 너무 착한 아이도 없다. 세상을 배우고 자라고 넘어지고 이겨내는 아주 평범한 아이들이 있다. 바로 일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아이들이다.

정경연(관악 어린이도서관연구회 회원)



텔레비전이 고장났어요

이수영 지음/책읽은 곰/40쪽/2012년

다크서클로 얼룩진 가족의 얼굴. 텔레비전 너~어!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보는 바람에 늦잠을 자버린 가족이 아침에 허둥대는 첫 장면을 보면 '우리도 저런 적 있는데...' 하면서 웃음 짓게 한다. 작가 이수영은 그림만 그려오다가 <텔레비전이 고장 났어요>에서 처음으로 글도 쓰고 그림도 그렸다.

숨은 그림 찾기 하듯 숨겨진 그림을 찾다 보면 우리나라에도 이런 작가가 있다니 반가움이 앞선다. 그림 속에 숨겨진 명화를 찾는 것도 재미있다. 인상적인 것은 가족의 변화에 따라 배경도 변하는 점이다.

텔레비전을 보는 것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삭막했던 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움을 아는 생명력을 가진 가족으로 변한다. 가족의 생명력은 한 공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가에 있다는 생각하게 한다.

<텔레비전이 고장 났어요>는 가족이란 뭘까?에 대해 생각하게 한다. 텔레비전이 고장 나기 전 가족의 모습과 고장난 뒤 가족의 모습을 비교해 보며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가 가진 일방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 텔레비전이 왜 나쁜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텔레비전과 같은 미디어가 많아 접하기 쉬운 요즘에는 유해하다고 무조건 멀리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가족이 함께 책을 보면서 미디어를 대하는 우리 가족 원칙을 세워 보면 어떨까? 또 미디어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해 보면 좋겠다.

(유수진/성보고등학교 학부모, 관악혁신지구 독서분과 위원)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부모

아이들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행복
도서관 책임기 봉사하는 어느 날...

박찬교(파주 별방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내가 사는 아파트의 작은도서관은 이름도 예쁜 별방작은도서관이다. 별방작은도서관에는 별빛보다 더 반짝반짝하는 눈빛을 가진 어린친구들이 있다. 수요일 늦은 오후 4시 30분이면 습관처럼 나의 발걸음은 별방작은도서관으로 향한다. 오늘은 바로 수요일... 친구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날이다. 그림책 두 권을 준비해서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세 명의 여자 친구들이 본체만체 그림그리기 삼매경에 빠져있다. "재미있는 그림책 가지고 왔는데, 같이 보지 않을래?" "....." "그럼 옆에서 읽을 테니까 너희들은 그림 그리면서 듣기만 할래?" "네 그렇게 하세요." "책속에도 친구들이 너희들처럼 재미있게 놀고 있는데, 뭘 찾으려고 땅을 파고 있는 걸까?" "요기 보석 있잖아요, 보석 찾으려고 계속 땅 파잖아요" "그치? 보석 찾으려고 땅을 열심히 파고 있는데 친구들은 뭘 그리고 있어" "보면 알잖아요, 주사약 그리잖아요" 아이들은 그림책 보다 그림 그리고, 그림책 보다 또 그림 그리고 색칠하기를 여러 번 반복한다. 자신이 그린 그림 속으로 속 빨려 들어 갈 듯한 눈빛을 하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색연필을 잡고 색칠하는 모습이 책 속 주인공들이 삼을 들고 땅을 파는 모습과 너무 닮아있다. 한편의 책이 더 남았지만 오늘은 아이들 놀이에 함께 집중 해주고 싶어 책을 덮었다. "우리 같이 놀까?" "선생님 병원놀이 할 줄 알아요?" "그럼~ 집에서 병원놀이 엄청 많이 했지~" "그럼 환자 할래요?" "얼렁 요기 누워요" "나는 간호사하고 윤진이는 의사, 서연이는 손님" 제일 언니인 민주가 능수능란하게 역할은 나눈다. "어디가 아파서 왔나요?" "배가 아파서 왔다고 하세요" "네 의사 선생님 배가 아파왔어요"

"아~ 머리에 염증이 생겼네요. 잠깐 기다리세요" 간호사 선생님은 확신에 찬 눈빛과 목소리로 수십 개의 파도물결들이 어지러이 그려진 종이 한 장을 나에게 건네며 "환자님의 상태는 지금 이래요" 한다. "선생님 그럼 저는 어떻게 되나요? 이제 죽는 건가요?" "아뇨 수술을 해야 살아날 수 있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머리에 염증이 생겼으니 머리 수술을 하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윤진 의사선생님은 수술할 때 환자의 수술부위에 덮어주는 천이라며 가운데가 뚫린 종이를 가지고 와서는 나의 머리가 아닌 배를 덮고 수술을 시작한다. 진단은 머리염증인데 수술부위는 배란다. 이거 아무래도 병원을 잘못 찾은 듯하지만, 일단 수술을 받아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지금 수술을 시작합니다. 움직이면 안돼요" "수술 끝났고요,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를 해야 겠어요" 하며 저리로 가더니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손님으로 있던 서연이는 옆에서 의사도 하고 싶고, 간호사도 하고 싶은 눈치다. 의사선생님, 간호사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서연 선생님 저 손이 너무 아픈데 손에 주사 좀 주세요" "네 ~" "주사 놔서 안 아프니까 내가 선생님 줄게요" "뭘요? 뭘 주시는데요?" "요기에 손 넣어 보세요" "돈이에요. 돈 줄게요" 의사도 해보고 싶고, 간호사도 해보고 싶은 서연이지만 제일 나이 어린 동생이라 언니들한테 얘기는 못하고 속으로 속상해하고 있던 차에 주사를 놔달라고 하는 내가 고마워서였을까? 나에게 예쁜 하트가 그려진 종이돈을 두 장이나 건넨다. 의사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이 뛰어와 깁스라며 흰 종이를 둘둘 말아 발목에 감싸며 절뚝거리며 걸으란다. "선생님 저 집에 아들, 딸 밥해주러 가야하는데 언제까지 있어야 해요?" "아들, 딸이 있어요?" "네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요" 옆에 손님으로 있던 서연이가 한마디 한다 "배진언니 나도 아는데..." "환자는 이틀은 병원에 있어야 해요" "집에 밥 해줄 사람이 없어서 집에 가야해요 선생님" "그래요, 다 나왔어요. 집에 가세요. 깁스도 풀고 가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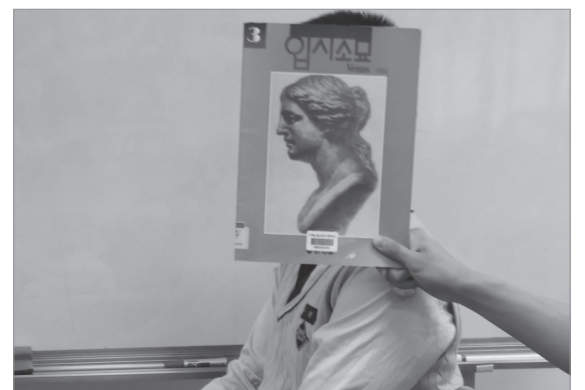
"네 고맙습니다" 책 읽어주러 온 시간이 훨씬 지나서야 어린친구들에게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몇 년 만에 해보는 환자역할인지..... 아이들이 나누는 말 한마디, 행동하나에 혼자 배꼽 잡으며 웃었던 시간이다. "애들아 너희들 아니? 내가 너희들과 놀아준 게 아니고 너희가 나랑 놀아준 거?" "좋은 봄날 새싹 갈기도 하고, 병아리 갈기도 한 너희들과의 행복한 시간이었어. 놀아줘서 고마워" 아이들에게 받은 선물 같은 시간이다.

학교도서관을 움직이는 사람들 - 학생

얼굴책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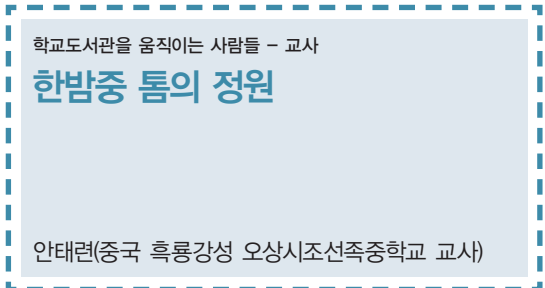
이진(미래산업과학교등학교 2년)

처음에 '일심동책'을 알게 된 것은 복도를 건다 우연히 게시판에서 본 것이었습니다. 책의 표지를 이용해 창의적인 사진을 찍는다는 점이 참신했습니다. 도서관의 내의 책의 표지를 어떠한 식으로 사진에 맞춰 찍을지도 고민해야 했습니다. 사진을 위해 표지를 찾아보니 잡지, 예술, 철학 분야의 책들에서 사람의 얼굴이나 조각상 등이 표지로 되어있었고, 그 외에 역사 사회 등의 분야에도 참신한 표지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책의 표지는 제목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럴싸한 제목의 책들을 몇 권 선정해 후보 군으로 놓고 각각의 표지에 맞는 배경을 생각했습니다. 비록 책의 제목과 표지는 알지만 책의 내용은 알 수 없었고 만약 책의 내용을 알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여 책을 읽고 책의 제목과 표지 그리고 내용이 서로 어떠한 관계가 있는 지 고려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책의 내용을 읽고 나니 표지가 어떠한 의미



인지 그리고 어떤 교훈을 주고자 하는지 알 수 있었고, 그 점을 바탕으로 배경을 생각해 표지에 알맞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일심동책’ 활동을 통해 이전에는 책의 표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책의 제목과 내용 모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즐거운 경험이었습니다.



7학년에서는 개학해서 사생이 함께 『한밤중 톨의 정원에서(창비)』란 책을 완독하고 독서와 “공부를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주제를 교묘하게 연계하여 주제반회(主題班會)를 가졌는데 다 같이 한 권의 책을 완독하고 책의 내용을 돌파하는 것과 공부를 할 줄 알아야 한다는 주제를 연결시키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왕의 주제반회를 보면 책에 관한 명언을 찾는다가 책을 읽은 명인들의 사적을 소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번 주제반회는 고정적인 관념을 깨드린 주제반회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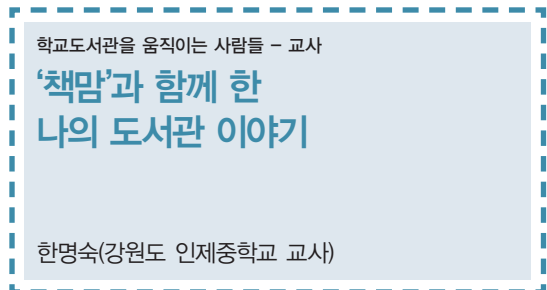
활동은 여섯개 소조로 나누어서 학습습관 들이기가 쉽지 않다는 것부터 인정하기, 자기 수준에 맞는 책부터 차근차근 시작한다, 책의 기본 정보와 감상 기록, 자기주도학습태도를 기르는 방법, 만점공부법, 독서토론진행과 방법 등을 심도있게 연구하였으며 매개 소조에서는 연구내용에 따라 소품으로 표현하기, 추천카드, 독서신문, 이야기기차 만들기,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독후감 쓰기, 재미있는 OX 퀴즈문제 내기, 그림을 그려 책 내용을 재편찬하기, 주인공에게 옷 해 입히기, 연극놀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독후활동을 진행하였다.

디자이너 소조에서 주인공 해티에게 드레스를 해 입히고 결혼식을 올리는 장면에서 학생들의 창의력, 상상력이 배양되었으며 담임들과의 협력에서 책읽기는 단지 열독과에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제반회, 지어는 교학 속으로도 들어 갈수 있다는 것을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이번 독후활동과 주제반회의 제일 큰 성과라면 학생의 자기주도학습, 합작, 탐구정신이 체현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생과 교원, 교원과 교원지간의 합작으로 이 활동을 더 깊이있게 탐구함으로써 한층 더 높은 단

계의 활동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활동으로 진행된 『한밤중 톨의 정원에서』란 독후활동과 “공부할 줄 알아야 한다”는 주제반회는 학생들에게 영원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뿔마루 가득, 봄날의 연두빛 햇살은 그 해 가을 그리고 겨울날까지 노오란 햇살이 되어 따사로왔다. 지금도 생각나는 내 열두 살의 뿔마루는 언제나 따듯한 햇살이 내 온 몸을 감싸던 기억으로 충만하다. 학교가 과하면 친구들과 부리나케 달려가 뛰놀았던 금희네 마당, 그리고 뿔마루 선반에 가지런히 꽂혀 있었던 빨간책들... 어느 날은 못 견디게 그 빨간책(소년소녀세계문학전집/계몽사)이 보고 싶어 금희보다 먼저 달려가 책장을 펼쳤던 곳... 하여간 5학년 그 해, 도무지 책읽기에 관심이 없었던 금희와는 달리, 틈만 나면 금희네로 달려갔던 내가 가끔은 금희엄마의 눈총을 느끼기도 했던, 어린 날의 뿔마루... 그 곳이 잊을 수 없는, 어린 날의 나를 성장시켜 준, 초등학교시절 나만의 도서관이었다.

학교도서관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어언 15년여 시간이 흘렀다. 2002년 1월 목원대학교에서 열린 전교조 참교육실천대회 학교도서관분과에서 내 삶의 든든한 평생 동지 선생님들을 만나고, 강원도 3개 학교에 학교도서관을 만들었다. 그리고 거쳐 온 곳만 어언 다섯 번째, 강원도 인제 골짜기의 아직도 열악하기 그지없는 시골 학교도서관을 다시 만났지만, 전교생 독서동아리를 꾸려 보람찬 만남을 만들어가고 있다. 새롭게 꾸민 학교도서관마다에서 아이들과 교사들과 책모임을 만들고 다양한 도서관체험 행사로 몸은 늘 분주했지만 마음은 언제나 뿌듯하게 행복하 날이었다. 그리고 학부모 책모임인 [책맘]들과의 만남이 어언 3년째이다. 처음엔 새로 학교를 옮긴 학교도서관이 4층 구석진 자리에 위치하여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문제를 돌파하고, 나아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의 활용 공간으로 활성화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꾸려진 학부모 책모임. 2013년 4월, 첫모임에서 만났던 12명의 책맘들이 지금까지 끈끈하게 이어지고 있다.

아마, 지금쯤 초여름이 시작되는 계절이었을 게다. 교사, 학생, 학부모 독서동아리연합으로 대관령옛길을 함께 걸었다. 이순원 작가의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을 굽이굽이마다 낭독하며 연초록으로 물오른 초여름의 그 길을 함께 걸었던 우리는 든든한 삶의 도반이 되었고, 월2회 ‘책맘과 함께 하는 목요일’의 만남은 자녀들이 중학교를 모두 졸업한 올해도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다. 칠따라 독서기행은 물론 교육공동체 한 책 읽기, 도서관하룻밤 캠프, 작가와의 만남, 시낭송콘서트, 낭독의 밤, 독서플레이스, 청소년독서아카데미에 늘 책맘들이 함께 하며 도우미 역할을 도맡아 해주셨고, 매월 지역의 교사독서아카데미 강연에도 빠짐없이 동참하여 스스로 인문학적 성찰의 시간을 확장해 갔다.

더욱 놀랍고 고마운 일은, 열두 명의 책맘들이 제각각 아이들이 진학한 다양한 상급학교에서, 마을에서, 아파트에서 새로운 모임들을 이끌어내고 작년부터는 초중고 30여개 학교가 모인 춘천시연합학부모 독서동아리모임의 중심 역할을 해내시며 급기야는 학부모독서아카데미와 연합독서기행을 추진하기에 이르렀다. 몇 분은 초등학교 교실과 노인복지시설에서 책을 읽어주시고, 어느 분은 가정도서관 운동을 펼쳐 마을공동체 문화를 변화시키고 있다.

3년 전, 아이들의 이름으로 자신을 소개했던 책맘들이 이제는 당당하게 서로 서로의 이름을 부른다. 지금도 월2회 꾸준히 정례 책모임을 갖고, 부득이 춘천지역을 떠나 발령이 난 내게도 책을 보내주시고, 매월 교사독서아카데미와 소통 공간에서 만남이 이어지고 있다. ‘내가 그은 밑줄’에서 서로 공감하고, 때로는 울먹이며, 박장대소하며, 한 권 한 권 함께 읽기 책 추천을 하면서 진정한 삶의 동반으로서의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춘천 ‘책맘’들의 영향력이 인제 지역까지 미쳐서, 인제 산골에서도 학부모책모임이 진행 중이다. 유난히 다문화가정이 많은 이 지역에 다문화가정 부모님과 동네 이장님도 동참하신다. 올 가을엔 자작나무숲에서 시낭송콘서트를 열고 춘천 ‘책맘’과 인제 ‘북킹’ 학부모책모임의 반가운 만남의 장도 열어보아야겠다.

책의 힘을 새삼스레 느낀다. 아니, 책을 통해 만들어진 관계의 힘을 믿는다. 우리의 소박한 관계가 더 큰 사슬로, 그물로 이어져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데 작은 디딤돌이 되리라 믿는다. 학부모책모임은 그 분들의 존재 자체가 교육의 힘이다. 지속적인 책모임을 통해 단지 반 발짝만 앞서가며 보여주는 부모 자신의 변화가 아이들의 삶을, 가정을, 교육 현장을, 나아가 우리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씨앗이 되리라 믿는다.

학도넷 소식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학도넷 활동소식입니다.

학도넷 행사

- 2016년 3월 15일 소식지 겨울호 발행(총권 38호)
- 2016년 4월 19일 학도넷 사례공모 '나와 도서관'
- 2016년 4월 23일 학도넷 4월 만남과 바람 '근대로의 이행과 좌절 그리고 희망' (정동길)
- 2016년 5월 28일 학도넷 4월 만남과 바람 '역사의 캔버스'(남산)

신입회원 (2016년 3월~5월)

정회원 : 박현희, 차순영, 정아름, 임경희

준회원 : 김은주, 김경민, 강태정

웹회원 : 고미정, 안영은, 정영산, 주미라, 이미영, 엄태혁, 김솔, 백현숙, 방철, 손은아, 이정선, 안옥자

회비 및 후원내역 (2016년 3월~5월)

정회원 회비

· 매월 5천원 : 강복숙 강영미 구미숙 권도경 길미숙 김경숙(보령) 김대경 김선영 김심환 김영신 김은영 김정운 김정혜 김하나 김효숙 마민희 박미영 박준섭 백경숙 백연주 선보배 성주영 이혜진 송경영 송숙영 송추향 송혜영 신은미 신정화 신형란 유서연 유정원 윤남미 이유정 이 현 이현애 임경순 임민옥 정수연 정영희 정명하 정해선 주상태 차진미 채재현 최선옥 허지연 허지은

· 매월 1만원 : 강애라 강지영 권향미 김경숙 김광재 김숙경 김은영 김순홍 김승주 김신희 김옥위 김중성 김진희 김진희 (관악) 류주형 문예원글로피아 박 샘 박영옥 박정해 박지연 변영이 백화현 오희애 유은실 이경자 이규향 이기영 이문숙 이영주 이찬미 장범진 정수현 정영희 정지영 정진수 조길량 조선희 조은영 조의래 허경림 황봉희

· 매월 3만원 : 도서출판 북극곰

준회원 회비

· 매월 : 김민형(2천) 김승요(2천) 김승현(2천) 손은상(2천) 손은서(2천) 손은재(2천) 송권형(1천) 이제희(2천) 장버리(3천) 장한솔(2천) 최유미(3천)

정기후원 : 문학동네(매월 20만)

특별후원 : 이덕주(73,200원-hakdonet 도메인 사용료 후원)

새로 나온 책 보내주신 곳

아빠와 함께 그림책 여행 2(북극곰)/ 이부자리 맨발체조(한울림어린이)/ 나무도장평화를 품은책/ 디다와 소용요정(비룡소)/ 잠자는 할머니(북극곰)/ 참 다행인 하루(낮은산)/ 북극곰 형제의 첫모험(살림)/ 만지마! 내몸이야(씨줄북스)/ 기발한 과학책(사이언스북스)/ 나의 수호천사 나무(비룡소)/ 스스로 가족(한솔북스)/ 말하기 토론(철수와 영희)/ 조영권이 들려주는 참 쉬운 곤충이야기(철수와 영희)/ 소년과 코끼리(고래가숨쉬는도서관)/ 그란잡, 미래를 여는 녹색직업을 만나(양철북)/ 어느 민주주의자의 서울대 권장도서 100선 읽기(양철북)/ 이습할아버지 왜 사자가 겁먹었어?(씨줄북스)/ 시집살이(북극곰)/ 나를 세어 봐!(한울림어린이)/ 10대, 나만의 꿈과 마주하라(글라이더)/ 세계 유산미로 여행, 소원을 담은 그림, 민화(길벗스쿨)/ 아주 특별한 선물(나한기획)/ 분홍문의 기적(비룡소)/ 개똥벌레가 똥똥똥(천개의바람)/ 행복을 나르는 버스(비룡소)/ 아기장수의 꿈(낮은산)/ 그림책에 흔들리다(낮은산)/ 학교도서관 문화를 꿈꾸다(우리교육)/ 내가 누구?(우리교육)/ 햇살가득 새싹이 피어요, 푸른 숲에는 매뚜기 악단이 노래해요, 단풍나무 씨앗은 콧등에 올려요, 꽃송이처럼 내리는 하얀 눈을 먹어요(자유로운상상)/ 과학자들은 왜 철새를 탐구했을까, 사라져 가는 야생 동물의 아름다운 초상(한울림어린이)/ 심리학 교실을 부탁해(우리교육)/ 위니를 찾아서, 짝꿍을 찾아요(미디어창비)/ 지구를 구하는 정치 책(나무야)/ 그날 밤 인형의 집에서(비룡소)/ 사랑에 빠진 도깨비(상상의힘)/ 동물나라의 디자이너 여우(비룡소)/ 걸리버여행기(비룡소)/ 코스

모스스쿨1, 2(고래가숨쉬는도서관)/ The castle 인형의 성(고래가숨쉬는도서관)

소식지 보내주신 곳

맨발동무(어린이도서관 맨발동무)/책&(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도서관문화(한국도서관협회)/학부모신문(참교육학부모회)/놀이하는사람들(사)놀이하는사람들/고래가숨쉬는도서관 겨울호(고래가숨쉬는도서관)/개똥이네 놀이터(보리)/어린이문화연대/계간 우리교육 봄호

*** 보내주신 소중한 자료들은 학교도서관활성화를 위해 귀하게 쓰겠습니다. 계속적인 광고와 도서후원을 기다립니다.**

2016년 학도넷 4월 만남과 바람 다녀왔습니다.

'근대로의 이행과 좌절 그리고 희망' 정동길 산책 한국 근현대사의 백과사전과 같은 곳. 구한말 이 땅에서 벌어진 외교각축전의 제현장이 바로 정동 일대를 걸으며 100여 년 전의 모습을 가능해보고, 지금의 한국사회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때 : 2016년 4월 23일 (토) 10시~16:00

· 다녀온 곳 : 서울시청사 → 환구단 → 대관정 터 → 플라자호텔 → 덕수궁 → 부민관 → 서울시립미술관 → 배재학당 → 정동제일교회 → 경성중앙방송국터 → 경희궁 벚개 → 러시아공사관 침탑 → 손탁호텔 터 → 중명전

2016년 학도넷 5월 만남과 바람 다녀왔습니다.

〈'역사의 캔버스' 남산 산책〉 일본, 해방 뒤의 군사독재정권 등이 자신들의 입맛에 따라 그림을 그려온 남산. 그들의 흔적을 찾아보고 의미를 되새겨보았습니다.

· 때 : 2016년 5월 28일(토) 13:00~16:00

· 다녀온 곳 : 송례문 → 김유신장군 동양상 → 백범김구 동상 → 조선신궁 터 → 한양공원 표석 → 노기신사 → 통감부 및 조선총독부 터 → 혼간지 터 → 경술국치 현장 → 안기부 청사 터

2016 학도넷 '나와 도서관' 사례공모

(사례공모 주제 : '나와 도서관')

1. 내가 만난 도서관 이야기(생애 처음으로 만난 도서관, 도서관에서 만난 아주 특별한 인연, 나의 어릴 적 독서환경 이야기)
2. 자원활동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에 참여한 이야기
3. 자원활동이 인연이 되어 사서로 거듭난 이야기
4. 시민들이 나서서 도서관 만든 이야기(학교도서관, 마을도서관, 지역도서관)
5. 이외에 도서관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

▷ 시상

1. 상장액자와 책임어주는 의자(10곳)
2. 상장액자와 과정연극 '놀자'와 함께 떠나는 그림책여행 책공역 지원 (5곳)
3. 상장액자와 도서10권(10곳)

▷ 주최 :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 대상 : 누구나(학교, 공공, 작은도서관, 마을문고 이용자, 운영자, 잠재 이용자)

▷ 참여방법 : 소중한 경험을 편한 입말로 써서 보내주세요. (A4용지(글자크기 10) 1장 이상)

▷ 접수 : 2016년 5월 30일까지 (hakdonet@hanmail.net)

▷ 발표 : 2016년 6월 2일 학도넷 홈페이지

▷ 선정된 공모사례 시상식과 이야기마당

2015년 6월 11일 토요일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2016 학도넷 사례공모 '나와 도서관' 선정작 발표

*두루 누림상(책임어주는 의자와 상장액자)

삼도서관 (나에게 영향을 준 도서관 3곳)-박지원(강원)

나의 도서관, 아들의 도서관/ 송경훈(경기도)

나의 은인 "Library", 나의 든든한 친구 "도서관" / 조준우(대구)

학교도서관 봉사는 내 삶의 비타민/ 염효경(수원)

아픈 4월에 흥부네 꽃을 피우다/ 원돈스님(흥부네책놀이터)

책, 도서관이 내게로 왔다/ 이현애(황성)

행복한 사서를 꿈꾸며/ 정운정(건국대학교)

나를 꿈꾸게 한 도서관/ 조지환(작은뜰도서관)

책담과 함께 한 나의 도서관 이야기/ 한명숙(강원)

*두루 함께상(찾아가는 책공역 지원과 상장액자)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는 도서관/ 김경옥(대구대학교)

학교도서관의 '로망' / 김주상(경북)

도서관은 바람이고 구름이다/ 주상태(중대부속중학교)

*고루 나눔상(좋은책 10권과 상장액자)

모모를 만났던 나의 작은 도서관/ 강정희(영광초)

아침독서=하루가 행복한 시간/ 강상도(김해)

책임어주는 엄마가 선택한 도서관 탐방기/ 김순정(부천)

아이들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귀한 행복/ 박찬교(파주)

나를 키워 주는 도서관/ 신정현(목포)

내가 만난 도서관 이야기/ 신진숙(부산)

학도넷 만남과 바람 진행합니다.

· 학교도서관 주인(학생, 교사, 사서, 학부모)들이 서로 만나는 소통의 마당을 마련한다.

· 도서관 운영자들의 문화행사 기획력에 기운을 불어 넣는다.

차시	일시	시간	탐방경로
3차	6월(6.25)	16:00~19:00	한양도성을 걸으며 만나는 조선과 오늘날의 한국-낙산
4차	9월(9.03)	16:00~19:00	박제된 과거가 아닌 오늘의 현장-세종로와 경복궁

· **이공이** : 권기봉 선생님(오마이뉴스 시민기자, SBS기자(2005 SBS특종상), 서울시 명소 스토리텔링 자문위원)

· **지은 책** : 《권기봉의 도시산책-서울의 일상, 그리고 역사를 걷다》, 《다시, 서울을 걷다》, 《서울을 거닐며 사라져 가는 역사를 만나다》 등

학도넷 창립 12주년 기념 심포지움 및 정기총회 합니다.

< 도서관 활성화 위한 '나와 도서관' 이야기대회 >

2016년 6월 11일 토요일 오후1시 ~ 오후5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강당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주최
도서관화재단 '씨앗' 후원

시간	내용
1:00 - 1:30	여는 마당 집합행 문화공연 인형이야 영정애선생님의 인형극 도로리 이해랑선생님의 인형극 '하루'
1:30 - 2:00	여는 이야기 시민들이 나선 도서관 운동 박소희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2:00 - 2:30	시상식 '나와도서관' 사례공모 시상식
2:30 - 4:00	'나와도서관' 이야기대회 1. 내가 만난 도서관 이야기 2. 자원활동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에 참여한 이야기 3. 자원활동이 인연이 되어 사서로 거듭난 이야기 4. 시민들이 나서서 도서관 만든 이야기 (학교도서관, 마을도서관, 지역도서관...) 5. 도서관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들
4:00 - 4:30	토론 서로 묻고 답하기
4:30 - 5:00	정기총회 학도넷 정기총회

순수 시민단체인 학도넷의 재정은 회원님들의 회비와 후원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후원금과 회비는 학도넷의 재정자립과 안정된 활동을 보장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은행 356201-04-173422 학교도서관문화운동네트워크(학도넷)